

최상수 조사 부산지역 민요의 채록 정보 분석과 민요의 성격 고찰

박 경 수*

| 목 차 |

- I. 들머리
- II. 최상수 조사 부산지역 민요의 현황과 채록 정보 분석
 - 1. 부산지역 민요 자료의 현황
 - 2. 채록 정보 분석: 기존 민요 자료집 수록 민요와의 대조 검토
- III. 최상수 조사 부산지역 민요의 성격과 의의
 - 1. 동래지역 전승 〈모심기 노래〉 등 논농사요의 집중 조사와 확인
 - 2. 동래지역의 다양한 전승 동요 채록과 그 의의
 - 3. 다양한 타령요의 채록과 그 특징
- IV. 마무리

| 국문초록 |

최상수는 『경상남도지(하)』(1963)에서 자신이 수집한 부산·경남지역 민요를 게재하면서 채록 정보를 밝혀 놓았다. 그런데 이들 민요의 상당수는 김사엽·최상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 kspark@bufs.ac.kr

수·방중현이 공동 편찬한 『조선민요집성』(1948)에 수록된 것들을 확인했다. 필자는 두 문헌에 수록된 부산지역 민요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민요 자료에 대한 채록 정보가 신뢰성을 가진 것인지를 분석했다. 최상수가 유년시절 지인들로부터 들었던 민요들을 당시로 소급해서 기록한 채록 정보가 있었지만, 채록 정보는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문헌에 공동으로 수록된 부산지역 민요 중에는 기존 민요집에 이미 게재된 바 있는 민요가 5편으로 드러났다. 최상수가 이들 민요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재수록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상수가 초기에 조사한 부산지역 민요는 고향마을인 당시 ‘동래읍 교동’(현 동래구 명륜동)에서 지인들을 통해 주로 조사한 것들이었다. 이후 주변 마을로 조사 범위를 넓혀서 민요 조사를 확대했다.

최상수가 조사한 부산지역 민요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었다. 첫째, 동래 지역에서 전승되던 <모심기 노래>를 비롯한 농업노동요를 다수 조사했다. 특히 고향마을에서 조사한 <모심기 노래>는 모심기의 진행 순서에 따라 채록되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사설로 이루어져 있었다. 둘째, 최상수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동요들을 비롯하여 고향마을의 지인들로부터 채록한 동요들이 다수였다. 이들 동요를 통해 당시 동래지역에서 전승되던 동요의 다양한 면모를 알 수 있다. 셋째, 비기능요에 해당하는 ‘타령요’들이 다수 채록되었다. 시집살이 등의 생활을 노래한 생활타령요, 과부나 첩 등의 신세를 서사적 맥락을 통해 엮어서 부르는 신세타령요, 인물이나 동물, 사물 등을 흥미롭게 풀어서 노래한 타령요 등이 많았다. 특히 <노루 노래>는 ‘동래 온정’이란 장소성을 중요하게 인지하도록 하는 노래로 주목되었다.

주제어 : 최상수, 손진태, 부산지역 민요, 동요, 모심기 노래, 타령요, 채록 정보, 『조선민요집성』, 『경상남도지(하)』, 『조선동요집』, 『언문조선구전민요집』.

I. 들머리

민속학자인 최상수(崔常壽, 1918~1995)는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조사한 민요를 『경상남도지(하)』(1963)¹⁾에 수록하면서, 대부분의 민요에 대해 조사 시기, 조사 장소, 제보자 등 채록 정보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들 민요 중 상당수가 최상수가 김사엽(金思燁, 1912~1992), 방중현(方鍾鉉, 1905~1952)과 함께 펴낸 『조선민요집성』(1948)²⁾에 먼저 게재한 바 있는 민요 자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지(하)』에 수록된 민요의 채록 정보는 『조선민요집성』에 수록된 부산과 경남 지역 민요들에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문헌의 대조를 통해 채록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당시 최상수가 조사한 부산·경남지역 민요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두 문헌에 공동으로 수록된 민요들 중에서 『조선민요집성』이 발행되기 이전에 나온 여러 민요 자료집에서 일부 민요들이 발견됨으로써 최상수가 기록한 채록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이 의문을 해소해야 최상수가 조사한 민요 자료들이 갖는 성격과 위상 등에 대한 논의를 더 진행할 수 있다. 이 글은 『조선민요집성』과 『경상남도지(하)』에 수록된 부산·경남지역 민요들 중에서 먼저 부산지역 민요를 대상으로 대조, 확인함으로써 두 문헌에 함께 수록된 민요들과 그렇지 않은 민요들을 변별하도록 한다. 나아가서 이들 민요 중 어떤 민요들이 기존 민요 자료집에 수록된 것들인지를 밝히는 한편, 이와 관련된 채록 정보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구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상수가 조사한 부산지역 민요들이 지역민요로서 갖는 성격과 위상을 민요사적 관점에서 최종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이 갖는 연구 목적이다.

최상수는 손진태(孫晋泰, 1900~1960년대 중반)³⁾를 이은 부산 출신

-
- 1)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이하 이 책의 표시는 본문과 각주에서 ‘『경상남도지(하)』’로 간략하게 표기함.
 - 2) 김사엽·최상수·방중현 편,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이하 이 책의 표시는 본문과 각주에서 ‘『조선민요집성』’으로 간략하게 표기함.
 - 3) 손진태는 현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리(당시 경상남도 동래군 사하면 하단리)에서 1900년 12월 28일에 출생했으며, 5살 때 북구 구포리 남창마을로 이사를 와서 12살까지 살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남창(南倉)이란 호는 이 남창마을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

의 민속학자이다. 1918년 12월 3일 경상남도 동래군 동래읍 교동(현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에서 출생했다.⁴⁾ 동래제일공립보통학교(현 내성초등학교) 시절 김용우(金容瑀) 교사로부터 영향을 받아 우리 민속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⁵⁾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그는 이후 서울에서 잠시 머물다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오사카외국어학교(大阪外國語學校)에서 영어를 전공, 아시아역사를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1937년에 졸업했다.⁶⁾ 후술하겠지만, 1930년 이후부터 일본 유학 시기에도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거의 매년 부산과 경남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설화와 민요 등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귀국 후에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잡지사 및 신문사 기자를 거쳐 여학교 영어 교사로 일했다.⁷⁾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창씨 개명한 토요노 미노루(豊野 實)로 서간집 『여학교(女の學校)』(조선어연구회, 1944. 9), 설화집 『조선의 전설(朝鮮의傳説)』(대동인서관, 1944. 10)을 일문으로 잇따라 간행하고, 최상수 명의로도 『과학소화(科學小話)』(조선어연구회, 1947. 7)를 일문으로, 『현대동요·민요선』(대동인서관, 1944. 8)을 국문으로 펴냈다.⁸⁾

광식이 「손진태의 생애와 학문활동」, 『역사민속학』 제11집, 2000, 21쪽에서 남창(南倉)이 출생지인 하단리의 마을에서 비롯된 것으로 잘못 파악했는데, 이후 여러 글에서 이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박경수, 「일제강점기 손진태 채록 부산 지역 민요의 성격과 의의」, 『향도부산』 39, 2020, 323쪽.

- 4) 최상수의 생몰년도는 디지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2020. 9. 9 접속)의 기록을 따랐다.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최상수&oldid=23389024>, 2020. 9. 9 접속)에서는 최상수가 1918년 12월 3일에 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생년월일은 음력 기준일 것이다. 양력을 기준으로 하면 1919년 생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grandculture.net>, 2020. 9. 9 접속)에서는 출생년도를 1919년으로 표기하고 있다.
- 5) 최상수, 「머리말」,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7~8쪽. 이 「머리말」은 먼저 간행한 『조선구비전설지』(조선과학문화사, 1949)에서 말한 일부를 재록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 6)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grandculture.net>)의 기록 참고.
- 7) 최상수의 귀국 후 1944년까지의 이력은 최상수 편, 『현대동요·민요선』, 대동인서관, 1944. 8, 16쪽에서 직접 약력을 기록한 바에 따른 것이다.

최상수의 해방 이전 저술 중에서 『과학소화』와 『조선의 전설』은 주목을 끈다. 그가 일찍부터 설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의 전설』로부터 비롯된 설화에 대한 관심은 해방 후에 『조선민간전설집』(을유문화사, 1947), 『경주의 고적전설』(양양사, 1947), 『조선구비전설지』(조선과학문화사, 1949), 『한국민간전설집』(통문관, 1958) 등으로 개고, 증보됨으로써 한국 구비문학사에서 중요한 업적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⁹⁾

최상수가 설화 분야에서 동향인 손진태의 뒤를 잇고자 했다면, 민속극 분야에서는 인근 울산 울주 출신인 송석하(宋錫夏, 1904~1948)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아 성장한 민속학자¹⁰⁾라고 말할 수 있다.¹¹⁾ 최상수는 설화와 민속극 분야 외에도 수수께끼, 민속놀이, 세시풍속 등에서도 주목할 업적을 냈다.¹²⁾ 그런데 설화 분야와 관련한 최상수의 업적에 관

-
- 8) 김광식·이복규, 「해방 전후 시기 최상수 편 조선전설집의 변용양상 고찰」, 『한국민속학』 56, 2012, 12~13쪽.
- 9) 『조선구비전설지』와 『한국민간전설집』으로 이어진 설화 자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채집 정보를 밝히고 있는 점은 설화조사의 역사에서 바람직한 생각을 앞서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들 전설집에 수록된 상당수의 자료가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의 『중국·조선·대만신화전설집(支那·朝鮮·台灣神話傳説集)』(1929)에 수록된 자료를 상당수 전재하거나 개작한 것임을 밝힌 연구가 있다. 김광식, 「최상수의 한국전설집 재검토」, 『열상고전연구』 64, 2018, 5~27쪽.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 당시 전설 자료 수집이 공책 기록에 의존했던 만큼, 최상수가 기존에 기록된 전설과 거의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에서 확인을 거쳐 기존 자료를 전재하거나 일부 고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상수의 현장조사 관련 채집력 기록을 가공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 10) 전경수, 『한국인유학 백년』, 일지사, 1999, 109쪽. 최상수의 민속극 관련 주요 업적으로 『하회 가면극 연구』(고려서적주식회사, 1959), 『한국 인형극의 연구』(고려서적주식회사, 1961), 『해서 가면극의 연구』(대성문화사, 1967), 『야류·오광대 가면극의 연구』(성문각, 1984), 『한국 가면의 연구』(성문각, 1984) 등이 있다.
- 11) 최상수는 『조선민간전설집』(1947)에서 손진태와 송석하로부터 서문을 받아 게재했는데, 후일 『한국민간전설집』(1958)을 간행할 때에도 두 사람의 서문을 그대로 실은 바 있으며, 『한국민간전설집』의 머리말에서 “이 두 분은 우리 민속학계에 끼친 공적이 적지 않은 분들로서 나오는 동학의 동지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선배였었다”(10쪽)고 했다.

해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민속극, 민속놀이 등 여타 분야와 관련한 업적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진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민요와 관련된 최상수의 업적에 대해서는 김사엽, 방중현과 함께 『조선민요집성』을 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영남인인 김사엽과 같이 1930년대 각자 조사한 영남지역 민요를 많은 비중을 두고 수록하고 있다는 정도로, 『조선민요집성』을 간략하게 개괄하는 이상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¹³⁾ 『조선민요집성』 수록 민요에는 ‘동래’, ‘부산’ 등 광역 단위의 지역 표시만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 부산지역 문헌 소재 민요 자료를 조사,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선민요집성』에 수록된 부산·경남지역 민요 자료의 대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채집력을 밝히고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경상남도지(하)』에 수록된 민요 자료들이다. 최상수는 당시 국민대학교 교수 겸 한국민속학회장으로 있으면서 이 책의 편찬위원으로 참여하여 ‘제8편 민속’ 부분의 전체 집필 책임을 맡았다. 그러면서 과거 부산·경남지역에서 조사, 채록한 민요들이자 『조선민요집성』에 수록된 민요 자료들을 재수록하면서 구체적인 채록 정보를 밝혀 놓았다. 두 문헌에 수록된 민요 자료의 대조 작업을 통해 해당 민요 자료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비로소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상수 조사 민요 자료는 채록 정보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
- 12) 수수께끼, 민속놀이, 세시풍속과 관련된 최상수의 업적으로 『조선수수께끼사전』(조선과학문화사, 1949), 『한국 전래 어린이 놀이』(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한국 민속놀이의 연구』(성문각, 1985), 『한국의 세시풍속』(고려서적, 1960) 등이 있다.
- 13) 『조선민요집성』을 개관하는 글들로 『국어국문학자료사전』(한국사전연구사, 1998)을 비롯하여 전자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 편)』(국립민속박물관, <http://folkency.nfm.go.kr>)에 수록된 글(박경수, 「조선민요집성」,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 국립민속박물관, 2013, 425~426쪽) 등이 있다.

첫째, 최상수가 기록한 채록 정보는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설화의 경우에도 최상수가 일본인 학자가 먼저 조사한 설화 자료를 전재하면서도 이에 대한 조사 정보를 후에 밝힘에 따라 일부 조사 정보가 가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했다. 민요 자료의 경우에도 이런 점에서 기존 민요집에 수록된 민요 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조사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둘째, 최상수가 기록한 조사 정보가 신뢰성을 가지는 경우라면, 이들 조사 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민요 자료를 조사, 채록했는지, 조사 시기와 장소, 제보자별로 특기할 사항은 없는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 시기와 장소, 제보자 등이 어느 정도 특정된다면, 이들 민요 자료가 지닌 지역적 특성은 무엇이며, 민요 조사의 전체적 과정에서 이들 민요 자료가 갖는 의의는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상에서 말한 검토 사항에 따라 최상수 조사 부산지역 민요 자료에 대한 채록 정보를 분석, 논의한 후 이들 부산지역 민요가 갖는 성격과 의미를 민요사적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Ⅱ. 최상수 조사 부산지역 민요의 현황과 채록 정보 분석

1. 부산지역 민요 자료의 현황

『조선민요집성』은 김사엽·최상수·방중현이 함께 펴낸 민요집이지만, 이 책의 체제와 구성 등 편집 일을 최상수가 주도적으로 맡았다.¹⁴⁾

14) “이 책(冊)을 엮음에 있어서 일사(一囊) 형(兄)은 일체(一切)를 내게 일임(一任)하고

이 민요집은 전체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이 구전민요, 제2편이 영남 내방가사, 제3편이 제주도민요이다. 이 중에서 제2편은 경북 출신인 김사엽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제3편 제주도민요는 방중현이 서문에서 자신이 1930년대 제주도 조천에서 조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¹⁵⁾ 이 글의 관심은 ‘제1편 구전민요’ 부분에 수록된 민요 자료에 있다.

‘제1편 구전민요’에는 475편의 민요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민요는 각편마다 조사지역이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대구·경북지역의 민요가 243편(51.16%)으로 가장 많고, 부산·경남지역 민요가 94편(19.79%)으로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한다. 두 지역을 합한 영남지역 민요가 337편으로 전체의 70%(70.95%)를 넘는다. 이에 대해 방중현은 서문에서 “영남(嶺南) 지방(地方)이 수효(數爻)로는 절대(絶對) 다수(多數)를 점령(占領)하여 있고, 타(他) 지방(地方)은 비교적(比較的) 양(量)으로 보아 영성하다는 점(點)”¹⁶⁾을 인정하면서, 이는 최상수와 김사엽이 모두 영남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영남지역에서 민요가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방중현의 말대로 영남지역 민요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를 인정한다고 해도, 이들 민요를 누가 실제 조사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대구·경북지역 민요 중 다수가 경북 출신인 김사엽이 조사한 것이고, 부산·경남지역 민요 중 다수가 부산(당시는 경남) 출신인 최상수가 조사한 것으로 잠정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최상수가 1932년경부터 여름과 겨울의 휴가 기간을 이용하

청계(淸溪) 형(兄은) 시골에 있는 관계(關係)로 직접(直接)으로 관여(關與)하지 못하게 되매 하는 수 없이 내가 일체(一切)를 맡아 엮게 된 것이나”(최상수, 『발(跋)』, 『조선민요집성』, 341쪽).

15) “제주도(濟州島) 민요(民謠)에 관(關)해서는 십수년(十數年) 전(前) 조천(朝天)에서 그 당시(當時) 팔십(八十)을 넘어선 일(一) 노구(老嫗)로부터 채집(採集)한 것”(방중현, 『서(序)』, 『조선민요집성』, 2쪽).

16) 방중현, 『조선민요집성』, 2쪽.

여 구비 전설을 채집할 목적으로 국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전설뿐만 아니라 민요, 속담, 수수께끼 등도 함께 조사, 채집했다는 기록¹⁷⁾을 고려하면, 부산·경남지역 외에도 타 지역의 민요 상당수도 최상수가 조사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역시 추정 이상으로 사실 확인이 어렵다.

최근 김사엽이 쓴 민요채집기¹⁸⁾를 통해 1935년 7월에 경북 칠곡, 김천지역을 포함하여 경북 중부지역과 충북 2-3개 지역을 조사하여 400여 수의 민요를 수집하고, 1936년 11월에는 방중현과 함께 부산→통영→남해→여수→제주를 횡단하는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된 바¹⁹⁾ 있다. 이로써 『조선민요집성』에 수록된 대구·경북지역 민요 대부분과 충북지역의 민요들이 김사엽이 조사, 채집한 것으로 심증을 좀 더 굳힐 수 있게 되었으며, 부산, 통영, 남해 지역 민요의 일부분도 김사엽이 조사한 자료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다행히 구인모가 김사엽의 민요 조사 결과보고서(수고본)를 찾아서 그 목록을 학계에 알림²⁰⁾으로써 그 윤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부산 영도에서

17) “지금으로부터 십오년(十五年) 전(前) 내가 조선(朝鮮) 전설(傳說) 연구(研究)에 유념(留念)하고 해마다 여름과 겨울 휴가(休暇)를 이용(利用)하여 주(主)로 구비(口碑) 전설(傳說) 채집차(採集次)로 국내(國內) 각지(各地)를 돌아다녔을 때 민속학(民俗學)에 관(關)한 민요(民謠), 속담(俗談), 미어(謎語), 방언(方言), 습속(習俗) 등(等)도 내 힘것은 조사(調查)와 채집(採集)에 노력(努力)해 왔었다.”(최상수, 앞의 글, 앞의 책, 341쪽). 이 글에서 ‘15년 전’은 최상수가 발문을 쓴 때인 1947년(단기 4280년)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1932년이 된다. 최상수는 또한 『한국민간전설집』(통문관, 1958)의 「머리말」(7쪽)에서 “내가 한국 민속(韓國 民俗), 그 중에서도 특히 전설(傳說)에 유념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二十七年 전의 일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머리말은 본래 『조선구비전설지』(조선과학문화사, 1949)에 올린 글인 점을 고려하면 역시 1932년이 된다.

18) 김사엽의 민요채집기는 다음과 같다. ① 「귀향문예: 민요채집기 -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조선일보』, 1935. 8. 2-9. ② 「남해연안 주민의 민요와 이언」, 『조선일보』, 1936. 12. 10-17.

19) 권오경, 「김사엽의 민요관과 민요 조사·연구의 특징」, 『한국민요학』 34, 2012, 23~25쪽.

20) 구인모, 「김사엽(金思燁)의 민요 조사와 연구에 대하여」, 『동방학지』 177, 2016, 1~31쪽.

조사한 4편, 경남 남해에서 조사한 33편의 민요 목록이 <제1수고본>에 포함되어 있고, 부산을 포함하여 경남 창녕, 통영, 남해, 거창, 마산에서 조사한 21편의 민요 목록이 <제2수고본>에서 확인된다.

최상수 조사 민요로 다시 관심을 돌려보자. 『경상남도지(하)』에서 부산·경남지역 민요 자료들에 대해 구체적인 채집력을 밝히고 있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선민요집성』 수록 민요들과의 대조를 통해 최상수가 조사한 부산·경남 민요 자료들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김사엽이 조사한 민요 자료인지의 여부 등도 따져볼 수 있게 되었다.

『경상남도지(하)』에 수록된 부산·경남지역 민요 중에서 ‘부산·동래’ 지역 민요를 기준으로 『조선민요집성』에 수록된 민요와 비교한 현황을 조사 시기 순으로 정리해서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경상남도지(하)』(1963) 수록 부산지역 민요의 조사시기별 현황

순서	조사 시기	게재 순서	제목	제보자	게재지면		조사 장소
					경남	민집	
01	1926.8	43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최갑수	206	225	동래읍 교동
02	1927.8	21	판 장사 판을 지고	윤가화	200	223	동래읍 교동
03	1928.8	30	각설이 타령(2)	김삼룡	202-3	247	동래읍 교동
04	1930.2	62	소먹이는 아이 노래	윤가화	210	255	동래읍 교동
05	1930.4	39	동독깨미	홍갑자	208	35	동래읍 교동
06	1930.5	53	살이	윤병삼	208	83	동래읍 교동
07	상동	54	새매 처자	상동	208	72	동래읍 교동
08	상동	56	상사병에 죽었더라	상동	208	53	동래읍 교동
09	1930.7	03	벗님이 오실능가	윤가화	194	×	동래읍 교동
10	상동	04	아랫 눈에 새야	상동	194	×	동래읍 교동
11	상동	05	나무꾼 아이 노래	상동	194	×	동래읍 교동
12	상동	06	젖방살이 말도 많다	상동	194	×	동래읍 교동
13	상동	09	까치를 보고	상동	195	×	동래읍 교동

순서	조사 시기	게재 순서	제목	제보자	게재지면		조사 장소
					경남	민집	
14	상동	11	내 하나는 옥단천이	상동	195	×	동래읍 교동
15	1930.8	22	장구 장구 보장구야	상동	200	219	동래읍 교동
16	상동	32	치지나 칭칭 나네	박종옥	203	187	동래읍 온천리
17	상동	33	호미 소리	박종옥	203	204	동래읍 온천리
18	1931.4	18	장 타령	이진수	199-200	258	동래읍 수안동
19	상동	19	첩의 노래	정대목 부인	200	53-4	동래읍 낙민동
20	1931.8	20	난감 춘이	윤가화	200	228-9	동래읍 교동
21	1931.8	31	지신밧기 노래	정대목 부인	203	199	동래읍 낙민동
22	1931.12	64	밭 매기 노래	정순일	210	×	동래읍 교동
23	1932.6	10	나부야	김소룡 모친	195	×	동래읍 교동
24	1932.7	07	과부 한탄가	윤가화	194	×	동래읍 교동
25	상동	08	죽은 사람 뒤에	상동	194-5	×	동래읍 교동
26	상동	12	과부 노래	상동	195	×	동래읍 교동
27	상동	13	모심기 노래(1)	상동	195-8	173-6	동래읍 교동
28	1932.8	15	쌍가락지 노래	상동	198-9	161	동래읍 교동
29	상동	16	초록제비(1)	김소룡 모친	199	153	동래읍 교동
30	상동	24	새는 새는 낭계 차고	홍갑자	201	219	동래읍 교동
31	상동	25	가자 가자 감나무야	상동	201	219	동래읍 교동
32	상동	55	첩년 부고	윤두병	208	53	동래읍 수안동
33	1933.4	57	셋별 액씨	홍갑자	208	35	동래읍 교동
34	1933.8	02	각설이 타령(1)	김재오	193-4	247-8	부산시 좌천동
35	상동	17	꽃 노래	이수진	199	137	동래읍 수안동
36	상동	29	꽃 노래	최복녀	202	133	동래읍 낙민동
37	상동	34	타작 노래(1)	정순일	204	203	동래읍 수안동
38	상동	44	알강달강 서울 가서	윤가화	206	223	동래읍 교동
39	상동	46	하늘천 따지	박종옥	206	221	동래읍 온천리
40	상동	47	방구	상동	206	221	동래읍 온천리
41	상동	48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최갑수	206	220	동래읍 교동
42	1934.8	01	영화로세	이재봉	193	34-5	부산시 초량동
43	상동	14	모심기 노래(2)	정대목 부인	198	×	동래읍 낙민동
44	상동	23	초록제비(2)	이태수	200-1	153	동래읍 수안동

순서	조사 시기	게재 순서	제목	제보자	계재지면		조사 장소
					경남	민집	
45	상동	26	주머니	상동	201	147-8	동래읍 수안동
46	상동	27	담바구 노래	정봉호 모	201-2	142-3	동래읍 복천동
47	상동	28	쨌레꽃	상동	202	137	동래읍 복천동
48	상동	35	타작 노래(2)	윤재구	204	203-4	동래읍 낙민동
49	상동	50	꽃 노래	김택수 모친	207	135	동래읍 수안동
50	상동	51	이산 저산	상동	207	128-9	동래읍 수안동
51	상동	58	시집 살이	김충옥	208-9	19	동래군 기장면
52	상동	59	염불선	김인선	209	161-2	동래읍 수안동
53	상동	61	분통 같은 저 짓 봐라	김인권	209-10	257	동래읍 수안동
54	1935.7	63	주추 캐는 저 처자야	김필선	210	×	동래읍 수안동
55	1936.8	52	엄마 노래	이금옥	207-8	124	동래군 기장면
56	상동	60	노루 노래	김화봉	209	156	동래군 기장면
57	미상	36	놀림 노래	최상수	204-5	232	동래읍 교동
58	미상	37	절로 절로 가다가	상동	205	229	동래읍 교동
59	미상	38	어대꺼정 왔노	상동	205	229	동래읍 교동
60	미상	40	꼬꾸랑 할머니	상동	205	226	동래읍 교동
61	미상	41	이바구 태바구	상동	205	226	동래읍 교동
62	미상	42	치부라 칩도당	상동	205	226	동래읍 교동
63	미상	45	바람아 바람아	상동	206	223	동래읍 교동
64	미상	49	새야 새야	상동	206-7	219	동래읍 교동
65	미상	×	우리 부모	미상	×	121	미상
66	미상	×	배사공 소리	미상	×	212	미상

※·경남은 『경상남도지(하)』(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 ‘민집’은 김사엽·최상수·방종현 편, 『조선민요집성』(정음사, 1948)을 말함. 계재지면의 × 표시는 해당 문헌에서 미수록 상태를 보임.

『조선민요집성』에는 조사 지역이 ‘동래지방’로 표시된 민요가 50편, ‘부산지방’으로 표시된 민요가 3편으로 총 53편이 올라 있다. <표>에서 보듯이, 『경상남도지(하)』에는 ‘부산·동래’로 표시된 민요가 64편인데, 『조선민요집성』에 수록된 53편 중 2편을 제외하고 51편이 재수록되

어 있다. 『경상남도지(하)』에 미수록된 2편은 <우리 부모>(동래, <표> 65번)와 <배사공 소리>(부산, <표> 66번)이다. 이 2편의 민요가 왜 『경상남도지(하)』에 빠져 있을까? 최상수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김사엽이 조사한 민요일 수도 있어서 김사엽의 수고본 목록을 확인한 결과, <제2 수고본>의 민요 목록에 <어부가(漁夫歌)>가 있었다. 이 <어부가>가 <배사공 소리>와 동일 민요일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해당 민요의 가사를 보지 못한 단계여서 확정하여 말할 수 없다.²¹⁾ <우리 부모>는 김사엽이 조사한 민요로 보기 어렵다. 김사엽이 남해 연안의 민요를 조사할 당시 부산에서는 영도만 잠시 들러서 4편의 민요만 조사했기 때문이다.²²⁾ 최상수가 이들 민요를 게재하지 않은 까닭이 직접 조사한 민요가 아니기 때문인지 실수 때문인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 어렵다.

위 <표>를 보면, 『조선민요집성』에 수록된 부산지역 민요는 1926년 8월부터 1936년 8월까지의 시기에 걸쳐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민요를 처음 조사한 시기가 1926년 8월부터 기록되어 있지만, 3편을 제외한 61편의 민요가 1930년 초부터 1936년 8월 사이에 조사되었다. 최상수가 밝힌바 전설, 민요 등 민속자료를 본격 조사한 시기인 1932년부터 헤아려도 전체의 65%가 넘는 42편이 조사되었다. 최상수가 민요를 주로 조사한 시기는 보통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오사카외국어학교에 수학하고 있던 시기가 중심이 된다.²³⁾

21) 구인모가 위의 글에서 제시한 <수고본1>과 <수고본2>에 수록된 민요 목록에 해당하는 민요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단계이다.

22) 김사엽, 『남해연안 주민의 민요와 이언』, 『조선일보』, 1936. 12. 10~17.

23)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수업연한을 6년(지역에 따라 5년 또는 4년 가능)으로 하고, 입학연령은 6세 이상으로 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보통학교』, 전자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2020. 10. 7 접속 확인). 현재의 최상수의 보통학교 수학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 보통학교의 입학연령과 수학기간을 고려하면 6살인 1923년에 입학해서 1929년에 졸업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최상수가 오사카외국어학교를 졸업한 시기가 1937년인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오사카외국어학교 졸업 이전까지 설화와 함께 민요도 조사한 것

최상수가 민요를 조사했다는 첫 시기는 1926년 8월이다. 이때 다리세기 노래인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를 채집했다는 기록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최상수의 출생년도가 1918년인 사실을 고려하면, 만 8세에 첫 민요 조사를 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민요의 제보자는 최갑수(崔甲壽)이고, 조사 장소는 ‘동래읍 교동’이다. 제보자인 최갑수는 최상수와 ‘수(壽)’자 돌림자를 쓰는 같은 항렬의 형제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²⁴⁾ 더욱이 조사 장소인 동래읍 교동은 바로 최상수의 출생지이며, 채집 민요가 동요라는 점에서 최상수가 어렸을 때 놀면서 제보자로부터 들었던 민요를 기억하여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1927년 8월부터 1930년 8월까지 윤가화(尹家和)를 비롯한 김삼룡(金三龍), 홍갑자(洪甲子), 윤병삼(尹炳三)을 제보자로 한 민요도 모두 ‘동래읍 교동’에서 조사되었다. 최상수가 민요를 조사한 초기인 1926년부터 1930년까지 ‘동래읍 온천리’에서 박종옥(朴鐘玉)으로부터 수집한 민요 2편을 제외한 15편을 모두 고향마을에서 제보자를 만나 조사한 셈이다.

그런데 이들 제보자는 모두 최상수와 가까운 친인척이거나 이웃 지인일 가능성이 높다. 최갑수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윤가화는 1927년 8월, 1930년 2월, 1930년 7월, 1931년 8월, 1932년 7월, 1933년 8월로 거의 매년 6회에 걸쳐 16편의 민요를 제공할 만큼 최상수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가까운 지인이 아닌가 한다. 1930년 이전 제보자인 최갑수는 2회 2편, 홍갑자는 3회 4편, 윤병삼은 1회 3편, 박종옥은 2회 4편을 제공할 정도로 타 제보자에 비해 상대적이지만 민요 자료를 제공한 횟수나 편수가 많다. 이들 역시 최상수와 가까운 지인일 가능성이 높다. 최상수는 자신이 제보자가 되기도 했다. 모두 8편의 동요를 기억하여 『조선민

으로 생각된다.

24) 앞으로 최상수 관련 가족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적으로 원적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최상수의 유족을 찾아 가계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과제로 남겨둔다.

요집성』에 올리고 『경상남도지(하)』에 채수룩했다. 그는 자신과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친구의 부모를 대상으로 민요 자료를 주로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²⁵⁾ 민요가 비교적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민요 제보자는 주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요를 조사하는 장소도 고향마을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해를 더하면서 인근 지역인 온천리, 복천동, 수안동, 낙민동으로 범위를 넓혔다가, 다음 남쪽으로 당시 ‘부산부’ 지역인 좌천동과 초량동, 그리고 동북쪽의 기장면으로 확대해간 것으로 파악된다.

최상수가 기록한 민요의 조사 시기, 제보자, 조사 장소 등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작위적인 정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최상수가 만 8세부터 민요를 조사했다는 점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유년기 때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들은 동요를 당시로 소급하여 기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여름과 겨울의 방학기간을 주로 이용하여 출생지인 ‘동래읍 교동’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민요를 듣고 기록함으로써 용이하면서도 순차적인 방식으로 민요 조사를 진행했다. 민요 조사를 하는 했수가 쌓이면서 ‘동래읍 교동’을 중심으로 반경을 넓힌 주변 지역에서 민요를 채록하다가 점차 조사의 범위를 확대해 갔다. 제보자의 수와 조사 자료의 편수도 점차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최상수가 채록한 부산지역 민요는 대부분 동래지역에서 조사한 것들이다. <표>에서 보듯이, 『경상남도지(하)』에 수록된 64편 중에서 1933년 8월 부산시 좌천동에서 채록한 <각설이타령(1)>, 1934년 8월 부산시

25) 설화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을 찾을 수 있다. 최상수는 『한국민간전설집』(1958)의 ‘경상남도’ 편에서 「금정산의 범어사」(183~184쪽, 1929년 6월), 「동래 온천」(185~186쪽, 이상 1929년 11월), 「웅천 천자바위」(199~200쪽, 1933년 10월)를 그의 부친으로부터 제공 받았으며, 「동래 관우묘」(192~193쪽, 1925년 6월)는 은사였던 서선생, 「바늘에 찢린 구렁이」(200~201쪽, 1929년 10월)는 역시 가까운 지인으로 보이는 김영조(金永祚)로부터 들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사 장소는 모두 ‘동래면 교동’으로 최상수의 출생지 마을이다.

초량동에서 확인 재조사한 <영화로세>, 그리고 1936년 8월 기장면에서 채록한 <엄마 노래>와 <노루 노래> 등 4편만이 동래지역 외에서 채록한 민요 자료들이고 나머지 60편이 동래지역 채록 민요들이다. 그리고 조사지역이 동래지역에서도 ‘동래읍 교동’에 집중되어 있고, 교동의 인근 지역인 복천동, 수안동, 낙민동과 온천리에 한정되어 있다. 부산지역 민요의 거의 대부분이 동래지역 민요이고, 교동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서 채록한 민요들인 점도 최상수 조사 부산지역 민요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데 『조선민요집성』과 『경상남도지(하)』에 수록된 민요 자료의 대조만으로 최상수의 조사, 채록과 관련된 정보가 온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부 민요 자료이긴 하지만 기존 민요 자료집에 수록된 민요 자료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가능한 폭을 넓혀 기존 민요 자료집에 수록된 민요들과의 대조, 검토가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2. 채록 정보 분석: 기존 민요 자료집 수록 민요와의 대조 검토

『조선민요집성』이 간행되기 이전, 일제강점기에 당시의 민요를 수집, 정리한 민요 자료집은 이외로 많다. 이들 중 부산·경남지역 민요를 수록한 필사본 민요 자료집, 민요조사보고서, 그리고 출판된 민요 자료집을 시기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엄필진, 『조선동요집』, 창문사, 1924.
- ② 이재욱, 『영남전래민요집』(필사본), 1930.
- ③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 ④ 조선총독부, 『민요조사(民謠調査)』, 1933.
- ⑤ 조윤제, 『민요집』, 경성조선어문학회, 1935.
- ⑥ 조선총독부, 『향토무용·민요조사(郷土舞踊·民謠調査)』, 1935.²⁶⁾

- ⑦ 임화 편, 『조선민요선』, 학예사, 1939.
- ⑧ 김사엽, 『영남민요』 등 수고 필사본(1936-7)
- ⑨ 조선총독부,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郷土娛樂)』(일문), 조선총독부, 1941.

이상 9종의 문헌에 수록된 민요 자료를 『조선민요집성』과 『경상남도지(하)』에 수록된 부산지역 민요와 대조, 검토한 결과, 동일한 민요로 확인되는 것은 <영화로세>(〈표〉 42번), <꽃 노래>(〈표〉 49번), <염불선>(〈표〉 52번), <각설이타령(2)>(〈표〉 03번), <지신밟기 노래>(〈표〉 21번) 5편이다. <영화로세>부터 <염불선>까지 3편은 『조선동요집』과 『영남전래민요집』에, <각설이타령(2)>는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 마지막 <지신밟기 노래>는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郷土娛樂)』에 먼저 수록된 바 있는 민요로 확인된다. 선행 민요집에 수록된 순서대로 채록 정보를 검토해 보자.

1) 『조선동요집』(1924)과 『영남전래민요집』(1930)에 수록된 민요
 최상수가 부산지역에서 조사한 것으로 채록 정보가 기록된 민요들 중에 위에 언급한 <영화로세>, <꽃 노래>, <염불선> 3편이 『조선동요집』과 『영남전래민요집』에 이미 게재된 바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문헌에 수록된 민요를 최상수가 재수록하면서 조사 정보를 허위로 기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 3편의 민요를 차례대로 살펴 보면서 채록 정보의 신뢰성을 따져보자.

먼저 민요 <영화로세>의 경우를 보자. 이 민요는 엄필진이 편찬한 『조선동요집』(1924)에 먼저 수록된 것인데, 『조선민요집성』에 이어서 『경상남도지(하)』에도 수록되었다. 각 문헌에 수록된 민요가 어떤 차이를

26) 임동권, 『한국민요집VI』, 집문당, 1981, 257~259쪽에 재수록된 ④와 ⑥ 문헌에서 ‘경상남도’ 편의 민요를 통해 확인함.

보이는지 차례대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三嘉峽川 너른野에	② 삼가합천 너른들에	③ 삼가 합천 너른 뜰에
원갓花草 송상하야	원갓화초 송상하야	원갓 화초 송상하야
鳳仙花는 길을잡고	봉선화는 길을잡고	봉선화는 질을 잡고
瓜花을낭 동을걸고	외꽃을랑 동을걸고	외꽃을랑 동을 걸고
茄子꽃흔 짓을달고	가지꽃은 짓을달고	가지꽃은 짓을 달고
苦椒꽃흔 동정달고	고초꽃은 동정달고	고초꽃은 동정 달고
粉花을낭 돌씨매여	분꽃을랑 돌씨매여	분꽃을랑 돌씨 매여
朝침이슬 살짝맞쳐	아침이슬 살짝맞쳐	아침 이슬 살짝 맞쳐
銀다리미 뺨을맞쳐	은다리미 뺨을맞쳐	은 다리미 뺨을 맞쳐
우리任을 입혔더니	우리님을 입혔더니	우리 입을 입혔더니
……(중략)……	……(중략)……	……(중략)……
길러너는 우리父母	길러내는 우리부모	질러 내던 우리 부모
오늘날이 榮華로세	오늘날이 영화로세	오늘날이 영화로세.
갓치크든 우리동기	같이크던 우리동지	같이 크던 우리 동지
오늘날이 榮華로세 ²⁷⁾	오늘날이 영화로세. ²⁸⁾	오늘날이 영화로세. ²⁹⁾

위에서 ①은 민요 <영화로세>가 엄필진이 편찬한 『조선동요집』에 수록된 모습이며, ②는 『조선민요집성』, ③은 『경상남도지(하)』에 게재된 모습이다. ①은 민요의 사설이 한자어로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비해, ②와 ③은 한글로만 기록되어 있다. 표기상의 한자와 한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민요임을 알 수 있다. ②와 ③의 차이는 ②에서 사설을 음보 단위로 기록한 데 비해, ③은 음보 단위로 기록하되 띄어쓰기를 하고 일부 어휘를 당시의 표기법에 따라 쓴 차이만 보여준다.

27) 엄필진, 『조선동요집』, 창문사, 1924, 133쪽(78번).

28) 『조선민요집성』, 34~35쪽.

29) 『경상남도지(하)』, 193쪽.

그런데 민요 <영화로세>는 사실 ①의 『조선동요집』에 처음 수록된 것이 아니다. 『동아일보』(1923. 11. 4)의 ‘지방동요란’에 경성(京城) 강경영(姜慶永)이 “창원지방(昌原地方)에서 유행(流行)하는 동요(童謠)”로 먼저 제목 없이 발표한 바 있다.³⁰⁾ 당시 강경영이 발표한 민요를 ①과 비교해 보면, 1행의 ‘삼가합천’이란 지명만 한자로 표기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모두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 곧 강경영이 발표한 민요를 엄필진이 『조선동요집』에 수록하되, 제목을 ‘영화로세’로 달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 어휘를 한자로 바꾸어 표기함으로써 민요가 가창되는 사설의 현장성과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했다. 잘못은 이뿐만이 아니다. 강경영이 분명 창원지방에서 유행하는 동요라고 했음에도 엄필진은 ‘부산’ 동요로 지역의 출처까지 바꾸어 놓았다.³¹⁾ 문제는 이후 이 민요가 엄필진의 『조선동요집』으로부터 ‘영화로세’란 제목을 달고 부산지방 유행 동요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물론 민요 <영화로세>가 창원지방에서만 불렀다고 말할 수 없다. 부산지역에서도 최상수 이전에 이재욱에 의해 조사된 바가 있다. 이재욱이 필사한 수고본인 『영남전래민요집』(1930)³²⁾에도 동일한 민요가 기

30) 배경숙, 『이재욱과 『영남전래민요집』 연구』, 영남민요연구회 편, 『이재욱전집3』, 국학자료원, 2013, 177쪽. 그런데 이 민요를 제공한 이가 강경수(姜慶水)가 아니라 강경영(姜慶永)임을 확인한다. 성명의 한자 표기를 배경숙이 잘못 판독하여 강경수로 기록했다.

31) 최근 류덕제는 엄필진의 『조선동요집』이 갖는 성격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조선동요집』에 수록된 자료가 대부분 동요가 아니라 민요라는 점, 자료의 절반 이상이 『동아일보』의 ‘지방동요란’을 통해 두고, 발표된 것을 재수록하면서도 채록자(투고자) 등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 투고자가 밝힌 민요의 전승 지역을 임의로 바꾸거나 창작동요를 전승동요로 둔갑시킨 점 등에서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류덕제, 『엄필진의 『조선동요집』과 아동문학사적 의미』, 『어문학』 149, 297~327쪽. 이외에도 전승민요의 첫 채보자(투고자)가 기록한 사실을 임의로 한자어로 임의 변경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한글로만 된 사실을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한자로 바꾸었을 때 의미 전달이 잘 된다는 고정관념이 작용하여 오히려 전승민요의 현장성과 실제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32) 『영남전래민요집』(1930)은 영남민요연구회 편, 『이재욱전집1』(국학자료원, 2013)에

록(186쪽)되어 있는데, 제목이 ‘영화’로 표기되어 있고, 1930년 8월 22일 부산의 동래에서 ‘장씨(張氏) 장모(丈母)’(67세)로부터 조사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엄씨(嚴氏)가 발표(發布) 부산 유행(釜山流行)한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재욱이 이 민요를 처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엄필진의 『조선동요집』에 먼저 수록된 것임을 밝힌 점을 미루어 보면, 이재욱이 이 민요를 부산 현지에서 ‘장씨 장모’로부터 확인 조사를 하여 재수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재욱의 경우와 같이 최상수도 이 <영화로세>를 부산지역 민요로 인지하고, 엄필진의 『조선동요집』 수록 민요를 모본으로 하여 부산지역에서 확인 차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경남남도지(하)』에 기록된 대로 1934년 8월에 ‘부산시 초량동’에서 이재봉(李在鳳)으로부터 조사한 ③이며, 그 이전 『조선민요집성』에 수록한 ②의 민요이기도 하다.

민요 <영화로세>는 엄필진이 『조선동요집』에 올렸지만 사설을 보면 동요로 볼 수 없다. 이 민요는 주로 부녀자들이 바느질을 할 때나 길쌈할 때 부르는 민요이다. 부인이 정성을 들여 옷을 짓는 과정에서 깃, 동정, 띠 등을 달며 치장하는 모습을 여러 화초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나아가서 부인이 지은 그 옷을 낭군이 입고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부모와 형제들이 영화를 보게 되었다는 서사가 들어있다. 긍정적인 의미의 주제를 중시하여 노래 사설에서 불리는 일절인 “영화로세”를 엄필진이 제목으로 삼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영화로세>는 부산, 창원은 물론이고 남해, 대구에서도 조사된 것으로 확인된다. 임동권의 『한국민요집』을 살펴보면, 창원의 민요로 기록된 <치장요>와 사설이 거의 일치하고, 부산지방에서 불렀다는 <꽃노

수록된 것을 대본으로 했으며, 『이재욱전집3』(국학자료원, 2013)에 수록된 배경숙의 「이재욱과 『영남전래민요집』 연구」를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래>도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동일한 사설이 들어있다.³³⁾ 김소운의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는 남해 민요로 제목이 <과거>(276쪽, 982번)로 된 동일 노래가 기록되어 있으며, 대구에서 조사된 <남편요>³⁴⁾ 역시 동일한 사설로 불린 것이다. 이로써 <영화로세>는 부산, 창원, 남해 등 부산·경남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등 경북지역에서 부녀자를 중심으로 폭넓게 불린 민요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영화로세>는 1923년 11월 4일자 『동아일보』에 강경영이 제보한 ‘창원지방’ 노래에서 시작되어 엄필진의 『조선동요집』을 거쳐 ‘부산지방’ 노래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를 이재욱이 1930년 8월에 동래 지역에서, 최상수가 1934년 8월에 ‘부산시 초량동’에서 이재봉(李在鳳)으로부터 확인 차 조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최상수가 『경상남도지(하)』에서 밝힌 채록 정보는 가공한 것이 아니라 기존 문헌에 수록된 민요를 확인 차 재조사한 기록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최상수가 민요를 조사하고 채록할 당시는 오늘날처럼 현장에서 노래를 녹음하고 제보자가 가창하는 대로 채록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없었던 때이다. 그는 당시 전설 채집의 상황을 “해마다 돌아오는 여름, 겨울의 휴가(休暇)만은 빼놓지 않고 공책(空冊)과 사진기(寫眞機)를 벗 삼아 전설 채집차(採集次) 각 지방(地方)을 생각나는 대로 쪼다녔다”³⁵⁾라고 말했다. 현장조사를 위한 도구로 공책과 사진기는 있지만 녹음기가 없었다. 당시는 녹음기가 매우 귀한 물건인데다가 부피가 매우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렵고 설사 구했다고 해도 현장조사에 쉬 가져갈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제보자의 구술이나 구송을 듣고 공책에 기

33) 창원지방의 <차장요>는 임동권, 『한국민요집Ⅳ』, 집문당, 1979, 321쪽. 작품 번호 725번. 부산지방의 <꽃노래>는 임동권, 『한국민요집Ⅴ』, 집문당, 1980, 282~283쪽. 작품 번호 864번.

34) 임동권, 『한국민요집Ⅰ』, 집문당, 1961, 121쪽. 작품 번호 512번.

35) 최상수, 『머리말』, 앞의 책(『한국민간전설집』), 8쪽.

록하는 방식으로 구비문학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니 듣기에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민요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인지되면 같은 민요로 보아 사실이 잘 기록된 것을 그대로 옮겼을 것이다. 오늘날처럼 가창 시의 사실 변화 등 세부적인 차이를 제대로 기록하기 어려웠을 당시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최상수는 기존에 알려진 <영화로세>를 제보자로부터 듣고 동일한 민요로 인식하여 『조선민요집성』 등에 재수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꽃 노래>의 경우도 <영화로세>의 경우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꽃 노래>라는 제목으로 『조선민요집성』에 3편이 수록되어 있다. 3편 모두 기본적으로 동일 종류의 노래인데, 노래마다 사실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이에 상응하는 민요를 『경상남도지(하)』에서 찾아서 채록 정보를 확인하면, 모두 다른 제보자로부터 조사, 채록한 것으로 드러난다. 1933년 8월 동래읍 수안동 이수진(李守鎭)이 제보한 <꽃 노래>(199쪽), 같은 때 동래읍 낙민동 최복녀(崔福女)가 구송한 <꽃 노래>(202쪽), 1934년 8월 동래읍 수안동 김택수(金宅洙) 모친이 구송한 <꽃 노래> 3편이 그것들이다. 이 중에서 『조선동요집』에 수록된 <꽃 노래>와 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민요는 마지막에 조사된 김택수 모친이 구송한 <꽃 노래>이다. 노래 전문을 들어본다.

이 때가	어느 댕고
춘삼월	호시 댕가
올아부지	생신 댕가
술을 부어	금청주라
그 술 묵고	치정 끝에
노래 한 장	지어 주소.

무슨 노래 지어 줄꼬

꽃노래를 지여 주소

목고 목고 도래꽃은
 야산에서 피여 나고
 시고 남은 피랭이꽃
 심산에서 피여 나고
 미나리아 시친꽃은
 물 가운데 피여 나고
 맨두래미 봉숭아는
 장독간에 피여 나고
 요내 몸에 처자꽃은
 방 가운데 피여 난다.³⁶⁾

위의 <꽃 노래>는 부친이 생일을 맞아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 꽃 노래를 부른다는 내용의 사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꽃들은 제각기 알맞은 처소에서 피어나는 독자적인 귀한 생명이라는 생태학적 인식이 게재되어 있다. 자연에 대한 생태학적 사유가 깃든 노래로 소중하다. 그런데 이 노래는 『조선동요집』에 수록되기 전에 앞서 든 <영화로세>를 제보한 경성의 강경영이 『동아일보』 1923년 11월 4일자에 ‘창원지방에서 유행하는 동요’로 투고한 4편 중 1편이다. 『조선동요집』에는 이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창원’의 동요로 표기하고 <꽃 노래>로 게재했다. 이후 이재욱은 1930년 8월 21일 창원 현지에서 노수봉(37세)을 통해 이 노래를 확인 조사하고 『영남전래민요집』에 올렸다. 최상수는 이 <꽃 노래>를 동래의 수안동과 낙민동에서 3명의 제보자로부터 조금씩 사설이 다른 민요를 조사, 채록했다. 이로써 이 <꽃 노래>가 당시 창원지역뿐만 아니라 부산·동래지역에서도 널리 전승되고 있다는 것

36) 『경상남도지(하)』, 207쪽.

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요 <염불선>도 앞서 언급한 2편의 민요들과 유사한 사례를 보여준다. <염불선>은 『조선민요집성』에 수록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지(하)』에서 1934년 8월 동래읍 수안동에서 김인선(金仁善)으로부터 채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민요집성』에 수록된 민요를 보기로 한다.

우리금주 심은나무
 금강수 물을주어
 옥판서 뺨은가지
 각읍수령 꽃이되고
 삼정승 열매열어
 은도끼와 금도끼로
 그냥글 미여내여
 모왔구나 모왔구나
 염불선을 모왔구나
 사공은 바라보니
 대사십륙 사공이오
 적군은 바라보니
 오방나한 적군이러
 ……(중략)……
 허리능청 둘러매고
 그어대 가는배오
 양친부모 기시더니
 금강산 제일봉에
 재미불공 가나이다³⁷⁾

37) 『조선민요집성』, 161~162쪽.

노래 사설에 불교와 관련된 어휘가 많다는 점에서 불교적 색채를 지닌 민요이다. 배를 만들어 진수하는 과정에서 불공으로 배를 잘 띄워 달라고 부르는 노래로 크게 신앙의식요 중에서도 불교의식요의 한 가지인 <염불 노래>³⁸⁾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 민요는 엄필진의 『조선동요집』에서 ‘동래’의 동요로 <염불선(念佛船)>(74번, 123-5쪽)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재욱의 『영남전래민요집』(1930)에도 동일한 민요가 기록(065ㄴ쪽)되어 있는데, 1930년 8월 22일 동래지역에서 ‘장부인(張夫人)’(45세)으로부터 조사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노래 가사의 끝에 ‘동아일보(東亞日報) 재(再)’로 기록하고 있는데, 배정선이 이를 빌미로 이 민요가 『동아일보』(1923. 11. 18)에 발표된 바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³⁹⁾ <영화로세>의 경우와 같이, 『동아일보』의 ‘지방동요란’에 수록된 민요 중에서 ‘동래지방 유행동요’로 ‘동래군 동래면 복천동(東萊郡 東萊面 福泉洞)’을 주소지로 둔 이인선(李仁善)이 제보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최상수가 조사한 제보자인 김인선이 『동아일보』의 제보자인 이인선과 성은 다르지만 묘하게 이름이 같다. 주소지가 수안동과 복천동으로 이웃 지역이지만 서로 다르고, 성도 달라서 서로 다른 인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염불선>의 경우도 <영화로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필진의 『조선동요집』에서 동래지방의 노래로 인지됨에 따라 이재욱과 최상수가 이 노래를 각자 서로 다른 시기에 지역과 제보자를 달리 하여 확인 조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최상수는 확인 조사한 이 <염불선>을 『조선민요집성』에 먼저 수록한 후, 『경상남도지(하)』에서 채록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조사의 경위를 밝힌 셈이다.

38) 박경수, 『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1998, 87~88쪽.

39) 배경숙, 앞의 글, 179쪽.

2) 『언문조선구전민요집』(1933)에 수록된 민요

『조선민요집성』과 『경상남도지(하)』에 공동으로 수록된 부산지역 민요들 중에 김소운이 편찬한 『언문조선구전민요집』(1933)에 먼저 수록된 민요로 확인되는 것이 <각설이타령(2)>이다. <각설이타령>은 『조선민요집성』과 『경상남도지(하)』에 2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각설이타령(1)>은 1933년 8월에 부산시 좌천동에서 김재오(金在五)가 구송한 것이고, <각설이타령(2)>는 1928년 8월 ‘동래읍 교동’(현 명륜동)에서 김삼룡(金三龍)이 구송한 것이다.

최상수가 채록한 <각설이타령(1)>은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 수록된 <각설이타령> 6편 중 세 번째인 902번(257쪽)의 민요와 일부 사설이 겹치는 등 동일한 유형(version)의 노래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설의 세부적인 구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 수록된 <각설이타령>이 모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후자의 <각설이타령(2)>는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서 사설이 거의 일치하는 민요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 게재되어 있는 <각설이타령> 6편 중 네 번째인 903번(257~258쪽) 민요이다. 이 민요와 최상수가 채록한 <각설이타령(2)>를 비교해 보면, “품과 품과 품과파”라는 사설을 903번 <각설이타령>의 끝에 덧붙이고 있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 <각설이타령(2)>를 보자.

일짜 한장 들고 바
정월이라 대보름
온갖 세상 만나 보고.

이짜 한장 들고 바
이월이라 매화꽃
각시대롱 하기 좋다.

……(중략)……

구짜 한 장 들고 봐
구월이라 국화꽃
처자 생각 절로 난다.

십짜 한 장 들고 바
시월이라 각설이
요리 조리 달이난다
폼파 폼파 폼파파.⁴⁰⁾

<각설이타령>은 각설이패들이 장터, 거리, 잔치집이나 초상집 등에서 걸식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⁴¹⁾ 일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일자(一字)부터 십자(十字)까지 순서대로 열거하면서 각 숫자의 첫 글자로 시작하는 말을 다음 사설의 처음이나 중간에 넣어서 해학적으로 또는 재치 있게 구성하여 신명이 나도록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를 주로 말한다. 일종의 숫자뒤풀이 노래로 사설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유형이 있다. 위 <각설이타령(2)>는 이러한 숫자뒤풀이 노래의 하나로, 각 숫자에 상응하는 달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이다.

그런데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 수록된 6편의 <각설이타령>은 당시 불렀던 다양한 유형의 노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노래는 모두 손진태가 직접 채집한 것들이다. 손진태는 자신이 채집한 민요 자료의 상당수를 김소운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데,⁴²⁾ 이 <각설이타령> 6편은 손진태가 ‘동래’(당시 동래군 구포면)에서 1930년 말과 1931년 초에 조

40) 『경상남도지(하)』, 202~203쪽.

41) 강은혜, 『각설이타령』, 『한국민속문화사전-민요』, 국립민속박물관, 2013, 33쪽 참고.

42) 이에 대해서는 박경수, 앞의 글(『일제강점기 손진태 채록 부산지역 민요의 성격과 의의』), 329~333쪽에서 자세하게 논의한 바 있다.

사, 수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각설이타령(2)>는 최상수가 1928년 8월에 자신의 고향마을인 교동에서 채록한 것으로 손진태가 조사, 수집한 시기보다 앞선다. 1928년이면 최상수가 만 10세 때인데, 과연 당시에 최상수가 의식적으로 이 민요를 채집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상수가 유년시절 고향마을에서 지인으로부터 들었던 민요를 기억하여 당시로 소급하여 채록 정보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 최상수가 기억하는 민요가 김소운의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 수록되어 있던 903번 <각설이타령>과 동일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민요를 그대로 채록하되, 사설의 끝에 “품파 품파 품파파”를 덧붙인 정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郷土娛樂)』(1941)에 수록된 민요

최상수가 『조선민요집성』에 올린 <지신밟기 노래>도 그 이전 다른 문헌에서 먼저 확인된다.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郷土娛樂)』(1941)에서 동래지방의 풍속과 놀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가운데 정월에 행해지는 ‘지신밟기(地神躑)’ 항목을 두어 이 놀이를 간략하게 설명한 후, 이 놀이에서 불리는 노래 가사를 적었다. 조사 상황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는 없이 조사 대상자를 ‘농민’으로만 기록하고 있으며, 노래 가사는 위 <지신밟기 노래>의 사설과 거의 일치한다. 양쪽 문헌에 기록된 <지신밟기 노래>의 사설을 비교하면, “까막까치 집을지여/그나무 부정하다”는 일부분만 『조선의 향토오락』에서는 빠져 있는 정도이고, 기본적으로 두 민요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상수는 이 <지신밟기 노래>를 『경상남도지(하)』에 재수록하면서, 1931년 8월 동래읍 낙민동에서 정대목(鄭大木)이 부른 것을 기록한 것으로 표시했다. 『조선의 향토오락』에 기록된 가사보다 최상수가 이 <지신밟기 노래>를 앞서 조사한 셈이다. 단지, 『조선민요집성』이 『조선의

향토오락』보다 늦게 발행됨으로써 최상수가 이 민요를 기록하는 시기가 늦어졌을 따름이다. 더욱이 한 지역의 <지신밟기 노래>를 특정한 제보자가 소리꾼이 되어 부르는 경우가 예사인 점을 고려하면, 두 노래의 사실 패턴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조선의 향토오락』에 기록된 <지신밟기 노래>는 정대목이란 동일 제보자로부터 채록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정보가 없으니 추정에 그칠 뿐이다.

Ⅲ. 최상수 조사 부산지역 민요의 성격과 의의

『경상남도지(하)』에는 최상수가 조사한 부산지역 민요 64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조선민요집성』에 먼저 게재된 민요가 51편이고, 『경상남도지(하)』에만 수록된 민요가 11편, 『조선민요집성』에는 있지만 『경상남도지(하)』에서 빠진 민요가 2편이다. 그런데 『조선민요집성』에는 들어 있지만 선행 문헌에 먼저 수록된 5편은 최상수가 확인 차 재조사한 것이거나 최상수가 먼저 조사한 민요라도 일단 선행 문헌에서 활자화된 것들로 해당 민요의 채록 정보가 갖는 의의는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조선민요집성』에서 이들 5편과 『경상남도지(하)』에서 누락된 2편의 민요를 제외하면 46편의 민요가 남는데, 이들 민요들은 최상수가 직접 조사한 민요들로 관련 채록 정보가 온전한 의의를 가진다. 여기다 『경상남도지(하)』에만 수록된 11편을 더하면 57편의 민요가 최상수가 독자적으로 조사, 채록한 민요로 인정된다.

이들 57편의 민요는 기능별 분류체계⁴³⁾에 따라 분류해 보면, 크게 세

43) 민요의 기능별 분류체계는 박경수, 『한국 민요의 기능별 분류체계』, 앞의 책(『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 11~154쪽에 따른다.

가지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동래지역에서 전승되던 <모심기 노래>를 비롯한 농업노동요를 집중 채록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둘째는 최상수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동요들과 고향 마을의 지인들로부터 채록한 동요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동요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비기능요에 해당하는 ‘타령요’⁴⁴⁾들로, 예컨대 <시집살이 노래>, <첩 노래>, <과부 노래>, <쌍가락지 노래> 등 생활이나 신세, 처지 등을 엮어서 부르는 서사민요들과 <각설이타령>, <꽃 노래>, <담바귀타령>, <방귀타령>, <장타령> 등 인물, 사물, 장소 등과 관련된 사설을 흥미롭게 풀어내는 타령요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최상수가 부산지역에서 조사한 민요가 갖는 세 가지 특징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이다.

1. 동래지역 전승 <모심기 노래> 등 논농사요의 집중 조사와 확인

최상수는 자신의 고향인 동래읍 교동에서 이른 시기부터 민요를 집중 조사했다. 동래읍 교동에서 조사한 민요가 모두 37편으로 『경상남도 지(하)』 수록 민요 64편의 57.8%에 이른다. 여기에는 유년시절 자신에 들었던 다양한 동요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모심기 노래> 등 논농사요가 집중되어 있다. 당시 ‘동래읍 교동’은 동래향교가 위치한 마을로 동래읍에서도 중심 지역에 속하지만, 마을 앞에는 수영강으로 흘러드는 온천천이 있어서 온천천 좌우로 넓은 농지가 펼쳐져 있었다. 농사를 지으며 불렀던 민요가 풍부하게 전승되었던 지역임을 최상수 조사 민요를 통해 알 수 있다.

44) 비기능요를 하위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할 때 다양한 비기능요를 아우르는 별도의 명칭을 설정할 수 있다. 필자는 잠정적으로 ‘타령요’란 명칭을 사용하여 비기능요를 하위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타령요’의 용어 적절성과 타령요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작업은 후고를 기약한다.

동래읍 교동에서 채록한 <모심기 노래(1)>은 1932년 7월에 윤가화로 부터 조사한 것이다. 윤가화는 동래읍 교동에서 민요를 가장 많이 제공한 제보자로 <표>에서 보듯이 민요 구연의 목록이 매우 다양하다. ‘어 사용’ 류에 해당하는 <나무꾼 아이 노래>, 일종의 ‘새 쫓는 노래’인 <아랫 논에 새야>, ‘아기 어르는 노래’인 <알강달강 서울 가서> 등과 <접방 살이 말도 많다>를 비롯하여 타령요에 속하는 여러 서사민요를 불렀다. 윤가화가 부른 민요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노래는 역시 <모심기 노래(1)>이다.

윤가화가 구송한 <모심기 노래(1)>은 전체 각편이 40편으로 매우 다양하다. 최상수가 모심기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의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를 일의 진행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채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주목을 끈다. <모심기 노래>를 “모 쫓 때, 거진 다 쫓 갈 때, 모심을 때, 점심 때, 점심이 더디 올 때, 점심 먹고 나서 오후, 해가 다 저 갈 때”로 구분하여 채록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모심기 노래>는 ‘모찌기 노래’와 ‘모내기 노래’를 통칭하는 것으로 아침 소리, 점심 소리(또는 낮소리), 저녁 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모심기 노래>를 이처럼 모심기의 진행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채록한 것은 최상수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최상수 이전에 손진태가 ‘동래 손중자(孫重子)’란 필명으로 동인지 『금성』 제3호(1924. 2)에 <등지(移秧歌)>라 하여 9편을 올리면서 남녀 공동으로 주고받는 교환창으로 부른다는 점을 특기하여 소개한 바 있으나,⁴⁵⁾ <모심기 노래>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부르는 소리가 상이하다는 점까지 말하지 않았다. 이후 송석하가 『남방이양가(南方移秧歌)』(1932. 9)⁴⁶⁾에서 모를 쫓 때와 모 심을 때 소리가 다르며, “아침참, 점심 때, 점

45) 박경수, 위의 글, 328쪽, 345~347쪽 참조.

46) 송석하, 『남방이양가』, 『신조선』 3, 1932. 9. 이 글은 『학해』 1937년 12월호에 재발표되었다. 처음 발표한 『신조선』 3을 찾지 못해 『학해』 소개 글을 참고함.

심참, 저녁 때”와 같이 각각 상이한 소리가 있다고 한 바 있지만, 이는 <모심기 노래>를 해설하는 과정에서 잠시 언급한 정도이다. 『언문조선 구전민요집』을 비롯한 선행 민요 자료집들에서도 <모심기 노래>를 일의 경과와 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채록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최상수가 뒤늦게 『경상남도지(하)』에서 채록 정보를 밝히긴 했지만, 『조선민요집성』에 게재(173~176쪽)된 <모심기 노래(1)>을 통해 <모심기 노래>가 일의 경과와 구연 순서에 따라 불린다는 것을 채록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모심기 노래(1)>은 다양한 노래 각편을 부른 만큼 주목할 만한 각편들을 포함하고 있다.

- ① 매자구 잠잘땀가
 난들산이 오를땀가,
 썰썰리 어데갔노
 썰썰리 산에갔네,
 있으시면 불렀더니
 오거들랑 보고가소」
- ② 저게가는 저구름은
 어떤신선 타고가노」
 웅천이라 천자봉에
 노던신선 타고가네」
- ③ 사공아 배둘리라
 우리동생 보러갈네」
 너거동생 무슨재로
 절두섬에 기양갔노」

- ④ 해빌눔해빌눔 꼬장바지
 궁당이시렵아 못살겠네,
 덮어줍세 덮어줍세
 한산소매 덮어줍세」⁴⁷⁾

이상에서 ①은 ‘해가 다 저 갈 때’ 부르는 노래로 채록한 것이다. <모심기 노래>에서 듣기 어려운 각편으로 생각된다. 사설 중에 호명되는 ‘매자구’와 ‘썰씨리’란 속어가 뜻하는 것을 알기 어렵지만,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니 찾은 ‘매자구’와 ‘썰씨리’가 멀리 산에 가고 없다고 해서 너무 늦게 모심기를 마친 것을 꾸짖는 소리로 보인다. ②의 사설에서 웅천과 천자봉에 대해 최상수는 노래 끝에 웅천(熊川)은 창원군 내의 지명이고, 천자봉(天子峰)은 창원군과 김해군 접경에 있는 산으로 주천자(朱天子)의 전설이 있다고 각주를 붙여 놓았다. ③의 사설에서 재, 기양, 절두섬에 대해 각각 죄, 귀양, 절영도(絶影島)로 각주를 붙여 놓았다. 여기서 특히 절두섬은 지금의 영도에 대한 별칭이라는 점에서 이 <모심기 노래>가 갖는 부산지역과의 연관성을 장소 표시를 통해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이 <모심기 노래(1)>은 부산과 인근 지역의 장소 명칭을 사설에 넣어 부름으로써 지역적 친연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④의 각편은 방언을 인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해학성을 배가하고 있다. 고쟁이를 ‘꼬장바지’라 하고, 고쟁이의 밑이 트여 속이 보일 듯 헤벌쭙한 상태를 ‘해빌눔해빌눔’으로 표현한 데다가 “궁당이시렵아”(궁둥이 시려서)라고 해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여기서 ‘한산소매’(한삼 소매, 즉 두루마기 소매)로 덮어주겠다고 하여 남녀의 연정을 은근하면서도 해학적으로 노래했다.

<모심기 노래(1)>에 이어 채록한 <모심기 노래(2)>는 1934년 8월에

47) 이상 『조선민요집성』, 173~176쪽에서 선별한 각편임.

‘동래읍 낙민동’(현 동래구 수민동)⁴⁸⁾에서 정대목(鄭大木) 부인이 부른 것이다. <모심기 노래>의 사설로 흔히 부르는 각편들로 각각 “남창 남창 배루 가에”, “머리 좋고 실한 처녀”, “알곰살곰 곱은 처자”로 부르는 것으로 채록되어 있다. 비록 3편에 불과하지만, 각편 끝에 후렴으로 “이 후 이후 이후”를 붙인 점에서 <모심기 노래>의 현장성과 생동감을 보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3편은 모두 <모심기 노래(1)>에서는 빠진 각편들이다. 이 민요가 『조선민요집성』에는 수록되지 않고 『경상남도지(하)』에서 비로소 처음 확인되지만 민요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모심기 노래> 외에 ‘논매는 노래’에 해당하는 <호미 소리>, ‘보리타작 노래’인 <타작 노래(1)>과 <타작 노래(2)>도 관심을 끈다. <호미 소리>는 1930년 8월에 ‘동래읍 온천리’(현 동래구 온천동)에서 박종옥(朴鍾玉)이 구송한 것으로, 흔히 부르는 상사소리가 아니라 “에헤헤야 호매이로다”란 후렴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 점이 특별하다. <타작 노래(1)>은 1933년 8월 ‘동래읍 수안동’(현 동래구 수민동)에서 정순일(鄭順一)이, <타작 노래(2)>는 1934년 8월 ‘동래읍 낙민동’에서 윤재구(尹在九)가 부른 것이다. 두 노래는 동일한 유형의 노래인데, 후자의 윤재구가 부른 <타작 노래(2)>가 좀 더 사설이 풍부하다. 이들 민요를 통해 1930년대 초 동래지역에서 부른 주요 논농사요의 모습을 풍부한 사설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2. 동래지역의 다양한 전승 동요 채록과 그 의의

최상수가 조사한 부산지역 민요 중에는 자신이 제보자로 유년시절에 듣거나 불렀던 민요들을 기억하여 올린 것들이 포함된다. 모두 8편으로 동요인데, <놀림 노래>에 들어 있는 10편을 개별적인 노래로 보면 최상

48) 현 동래구 수민동은 기존 낙민동과 수안동을 통합한 행정 동명이다.

수가 기억한 동요는 17편이 된다.

<놀림 노래>는 아이들끼리 놀면서 중머리, 얼굴이 엷은 아이, 이 빠진 아이, 오줌 싼 아이, 성낸 아이, 우는 아이, 장님, 중, 왜놈 등을 보고 놀리면서 부르는 동요로 좁게는 인물유희요나 버릇유희요이면서 넓게는 풍소유희요에 속한다. 이중에서 ‘왜놈을 보고’ 부른다는 다음 노래는 기존 동요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 놈 꼬은 놈
시리 밑에 곰백이⁴⁹⁾

위의 동요에서 일본 아이를 보고 ‘꼬은 놈’이라 하고, “시리 밑에 곰백이”라 했다. ‘꼬은 놈’은 마음에 거슬리는 아이를 말하는 방언이고, ‘시리’는 떡이나 쌀을 찌는 시루를 말하고, ‘곰백이’는 곰팡이의 방언이다. 그렇다면 일본 아이를 아니꼬운 존재라고 하고, 시루 밑에 낀 곰팡이로 보이지 않게 숨어서 몰래 해를 끼치는 곰팡이와 같은 존재라고 노골적으로 비아냥대는 노래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대한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귀중한 동요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민요집들에서는 위의 동요가 모두 빠진 것으로 보아, 민요집 편찬 시에 일제의 언론검열을 의식해서인지 위의 민요를 올리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최상수도 『조선민요집성』을 편찬할 때 위의 동요를 비롯해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동요들을 모두 게재하지 않았다.

최상수는 위의 <놀림 노래> 외에도 여러 다양한 동요들을 『경상남도지(하)』에 올렸다. 아이들이 길을 가면서 부르는 <질로 질로 가다가>, 앞에 가는 아이의 어깨를 뒤에서 양팔로 짊고 따르면서 부르는 <어데꺼 정 왔노>는 동작유희요에 해당하는 동요이고, 아이들이 어른에게 이야

49) 『경상남도지(하)』, 205쪽.

기를 해달라고 하면 어른들이 부르는 우스개 노래가 <꼬부랑 할머니>와 <이바구 태바구>이다. 그리고 <하늘천 따지>는 천자문의 한자를 해학적으로 짧게 부르는 것으로 언어유희요에 속하는 동요이다. 변덕스런 날씨를 보고 부르는 <치부라 칩도당>, 바람이 불어 대추가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부르는 <바람아 바람아>는 자연을 대상으로 부르는 자연유희요이고, ‘파랑새 노래’의 변형으로 보이는 <새야 새야>는 새를 보고 부모를 그리는 마음을 표현한 동요로 동물유희요의 한 가지이다.

최상수는 자신과 가까운 지인들로부터도 여러 동요를 채록했다. 이미 언급했듯이, 같은 향렬의 지인인 최갑수로부터 다리세기 노래인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와 비가 그치기를 바라면서 부르는 <비야 비야 오지 마라>(일명 ‘비 노래’)를, 윤가화로부터 까치를 보고 해학적으로 부르는 <까치를 보고>와 아기를 어르면서 부르는 <알강달강 서울 가서>,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등에 비스듬히 업고 놀면서 부르는 <판 장사 판을 지고>, 바닷가 바위에 붙은 양장구(‘성계’의 방언)나 따개비를 보고 부르는 <장구 장구 보장구> 등 3편을 조사하여 게재하고 있다. 그리고 홍갑자(洪甲子)로부터 소꿉놀이를 하며 부르는 <동독계미>와 아이들이 함께 놀다가 그만 놀자고 하면 섭섭해서 부르는 <가자 가자 감나무야>⁵⁰⁾ 아기를 재우며 부르는 <새는 새는 낭게 자고>를 채록하여 올렸다. 이들 동요 중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는 『언문조선구전문요집』에서 손진태가 채집한 <수요(數謠)> 3편 중에 사실이 거의 유사한 민요가 채록되어 있으며,⁵¹⁾ <까치를 보고>는 『조선민요집성』에 수록되지 않았는데, 유사한 동요를 역시 『언문조선구전문요집』에서 손진태가 채집한 <오록쫓록>⁵²⁾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동래와 구포지역

50) 편해문, 『옛아이들의 노래와 놀이 읽기』, 박이정, 2002. 이 노래와 사실이 거의 같은 동요가 김소운 편, 앞의 책, 254쪽(893번)에 손진태가 당시 동래(현 구포)에서 채집한 민요로 채록되어 있다.

51) 김소운 편, 앞의 책, 254쪽(894번).

에서 거의 비슷한 동요가 전승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최상수가 제공한 동요를 비롯하여 최갑수, 윤가화, 홍갑자 등으로부터 채록한 동요들은 모두 1930년대 초에 ‘동래읍 교동’에서 채록한 것들로 당시 동래지역에서 불렸던 동요의 다양한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3. 다양한 타령요의 채록과 그 특징

최상수가 부산지역에서 채록한 민요들 중에는 시집살이를 비롯하여 고된 생활을 노래하는 민요들이 많다. 이들 민요를 생활타령요라 명명하고자 한다. 김충옥(金充玉)이 부른 <시집살이>(1934. 8, 기장면), 윤병삼(尹炳三)이 부른 <살이>(1930. 5, 교동), 윤가화가 부른 <접방살이 말도 많다>(1930. 7, 교동) 등이 이 생활타령요에 속한다. 이 중에서 <접방살이 말도 많다>는 『조선민요집성』에 미수록된 노래이자 다른 민요집에서도 찾을 수 없는 노래로 『경상남도지(하)』에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민요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해기 좋은 넘우 서방
 하고 나면 그 뿐이고
 때기 좋은 덩불나무
 때고 나면 그 뿐이고
 시집 시집 댄 시집은
 살고 나면 끝이고
 시집 살이 탈도 많고
 접방 살이 말도 많다.⁵³⁾

52) 김소운 편, 앞의 책, 253쪽(889번).

53) 『경상남도지(하)』, 194쪽.

<시집살이 노래>는 일반적으로 시집살이를 고되고 힘들다는 사설로 풀어놓는 노래라면, 위의 민요도 시집살이가 고되면서 탈이 많고 말 많은 결방살이도 해야 하지만, 살고나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마음먹기에 따라 힘들고 고된 생활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어서 흥미롭다.

윤가화가 부른 민요 목록 중에는 과부의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로 <과부한탄가>와 <과부 노래>(이상 1932. 7, 교동)가 있다. 일종의 신세타령 요인데, 두 편 모두 『조선민요집성』에는 올라 있지 않다. 전자의 <과부한탄가>는 초파일에 짝을 지어 관등을 달려 가고, 돌과 나무도 짝이 있는데 짝이 없는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이며, 후자의 <과부 노래>는 전전 반측하는 과부의 처지와 여러 사정을 흥미롭게 노래한 것이다.

눅었으니 껌이 오나
 앳았으니 껌이 오나
 임도 껌도 아니 오네.

늙은 가부는 담배질
 젊은 가부는 한심질
 한심 끝에는 도망질
 서방 얻어 갔단다.

*껌 = 잠

*가부 = 과부⁵⁴⁾

위의 <과부 노래>에서 늙은 과부는 담배를 피우면서 세월을 보내고, 젊은 과부는 한심한 처지를 견디다 못해 서방을 얻어 도망을 갔다는 사연을 담고 있다. 윤병삼이 부른 <새매 처자>(1930. 5, 교동)도 『조선민

54) 『경상남도지(하)』, 195쪽.

요집성』에는 빠져 있는 노래로, 우물을 길는 처자가 좋은 집에 살면서도 눈이 멀어 안타까운 처지임을 노래한 신세타령요이다.

최상수는 첩과 관련된 노래를 여러 편 채록했다. 윤병삼이 부른 <상사병에 죽었다더라>(1930. 5, 교동), 윤두병(尹斗秉)이 부른 <첩년 부고>(1932. 8, 수안동),⁵⁵⁾ 정대목 부인이 부른 <첩의 노래>(1931. 4. 낙민동) 등이 그것들이다. 윤병삼과 윤두병이 부른 노래는 첩이 죽은 부고를 받은 본처의 입장을 노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가 본처가 숨겼던 첩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한층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조선민요집성』에는 전자의 민요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⁵⁶⁾ 그리고 정대목 부인이 부른 <첩의 노래>는 첩의 집을 찾아간 본처와 본처를 맞이하는 첩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첩에 대해 부러워하는 한편 첩을 미워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노래하고 있다. 삼삼을 때 부르는 서사민요의 한 가지이다.⁵⁷⁾

신세타령요 외에도 인물타령요, 동물타령요, 사물타령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여러 타령요들이 있다. <난감춘이>(윤가화, 1931. 8, 교동)와 <셋별 액씨>(홍갑자, 1933. 4, 교동)는 각각 난감춘과 셋별아가씨란 인물의 사연을 노래한 인물타령요라 분류할 수 있으며, <노루 노래>(김화봉, 1936. 8, 기장면)는 별도로 동물타령요에 속하는 타령요의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꽃 노래> 2편(이수진, 1933. 8, 수안동과 최복녀, 1933. 8, 낙민동)과 <절레꽃>, <담바구 노래>(이상 정봉호, 1934. 8, 북천동)는 모두 사물을 매개로 한 타령요로 가칭 사물타령요라 할 수 있

55) 동일 민요로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74, 296쪽(899번)에 ‘진주’ 민요 <첩요>가 게재되어 있다. 어떤 연유로 <첩년 부고>가 진주 민요로 게재된 것인지 알 수 없다.

56) <상사병에 죽었다더라>와 거의 유사한 민요가 임동권, 『한국민요집 I』, 집문당, 1961, 113쪽(482번)에 ‘청양’ 민요 <첩요>로 수록되어 있다.

57) “삼 삼을 때 부른다”는 채록자인 최상수의 주석이 붙어 있다. 『경상남도지(하)』, 200쪽.

다. 이밖에 <쌍가락지 노래>(윤가화, 1932. 8, 교동)는 누명을 쓴 처자의 억울한 심정을 노래한 점에서, <이 산 저 산>(김택수 모친, 1934. 8, 수안동)은 파혼으로 인해 낭군을 원망하는 심정을 노래한 점에서 잠정 심장타령요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노래 모두 서사적 맥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사민요로서의 특성도 지남은 물론이다. 위의 타령요 중 <노루 노래>는 『조선민요집성』에 수록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고정옥의 『조선민요연구』에도 <장(獐)타령>으로 소개, 논의되어 있다⁵⁸⁾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민요의 사설을 보자.

포수포수 박포수야
 날잡아다 그머할네
 포동포동 씨리포동
 덩불덩불 칠기덩불
 글로먹고 사느즘생
 사람의게 해럽드나
 짐성의게 해럽드나
 아흠새끼 나아놓고
 해산때가 좋지못해
 동래온정 물먹어러
 나는갔네 나는갔네
 날잡어다 그머할네
 이내빨을 빼었으면
 무당에 정성하고
 ……(중략)……
 이내고기 노났이면
 사또상에 상오르지.⁵⁹⁾

58)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8, 153~154쪽(81번)에서 경북 ‘선산’ 노래로 표시하고 있다.

위 <노루 노래>는 노루가 새끼를 낳고 해산하기 위해 물을 먹으러 동래 온천에 왔다가 포수에게 붙잡혀 죽게 되자, 노루의 뽕, 털, 껍질, 눈, 고기 등이 제각기 좋은 일에 소용된다고 노래하고 있다. 서사적 맥락을 지니는 서사민요로서도 관심을 끌지만, 이 노래가 ‘동래 온정’이란 장소 표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⁶⁰⁾ 『경상남도지(하)』에서는 이 노래를 최상수가 1936년 8월 기장면에서 김화봉(金化鳳)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조선민요집성』에서는 ‘동래지방’ 노래로 표시하고 있다. 동래지역에서 직접 불린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인근 기장지역 거주자인 제보자가 동래지역에서 듣고 알게 된 노래일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고정옥의 『조선민요연구』에서는 이 노래가 경북 선산에서 불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고정옥은 경성제국대학 시절 함께 수학했던 오영진, 김사엽 등과 지도교수인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1878~1967)로부터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각자의 지역에서 민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⁶¹⁾ 민요 조사를 한 시기는 고정옥이 경성제국대학을 재입학한 1936년 이후부터 졸업논문을 완성한 1938년 말 이전으로 본다. 이를 참고하면, 고정옥은 경북지역 민요 조사를 담당한 김사엽의 민요조사보고서로부터 이 민요를 인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어떤 경위로 이 노래가 선산의 노래로 표시된 것인지 알기 어렵지만, 노래의 사실 중에 ‘동래 온정’이란 표식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상수가 이 민요를 조사하고 채록한 정보가 한층 설득력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59) 『조선민요집성』, 156쪽.

60) 동래온천과 관련하여, 백록(白鹿)이 와서 잠자고 가는 곳을 파보니 따뜻한 샘이 솟아 올랐다는 설화가 전한다. 박원표, 「백록(白鹿)의 동래온천(東萊溫泉)」,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75~176쪽.

61) 박경수, 「고정옥 민요 연구의 관점 변화와 인용 민요 자료의 성격」, 『한국민요학』 57, 2019, 22쪽.

IV. 마무리

이 글은 김사엽·최상수·방중현이 공동 편찬한 『조선민요집성』(1948)에 수록된 부산·경남지역 민요의 대부분을 최상수가 『경상남도 지(하)』(1963)에서 재수록하면서 구체적인 채록 정보를 남기고 있는 사실을 주목하고, 이들 중 부산지역 민요에 대한 채록 정보를 분석하여 그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했다. 나아가 여러 선행 민요집에 수록된 5편의 민요 자료에 대한 선후 관계와 그 게재 경위를 밝힌 후, 부산지역 민요가 갖는 성격과 의의를 고찰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논의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상수는 부산·경남지역 민요를 보통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오사카외국어학교에 수학하고 있던 시기에 집중 조사했다. 대체로 부산지역 민요를 먼저 조사한 후 경남지역 민요를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을 보였다. 부산지역의 경우, 최상수는 고향마을인 당시 ‘동래읍 교동’(현 동래구 명륜동)에서 가까운 지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집중 조사한 후 점차 주변 마을로 지역을 넓혀서 조사 범위를 확대해 갔다.

둘째, 최상수가 밝힌 민요의 채록 정보는 특별히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정보는 없었다. 다만, 부산지역 민요 중 5편이 기존 민요집 등 문헌에 수록된 바 있음을 밝히고, 이들 민요들을 최상수가 확인 차 재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즉, <영화로세>, <꽃 노래>(김택수 모친 구송), <염불선> 3편은 『조선동요집』과 『영남전래민요집』에, <각설이타령(2)>는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 마지막 <지신밟기 노래>는 『조선의 향토오락(朝鮮의 鄕土娛樂)』에 먼저 게재된 바 있는 민요였다.

셋째, 최상수가 채록한 부산지역 민요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동래지역에서 전승되던 <모심기 노래>를 비롯한 농업노동요를 중점적으로 채록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당시 동래지역의

<모심기 노래> 사설의 풍부한 전승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한 가지이다. 다른 한 가지는 최상수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동요들과 고향마을의 지인들로부터 채록한 동요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당시 동래 지역 동요의 다양한 면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 한 가지는 비기능요에 해당하는 ‘타령요’들이 다수 채록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조선민요집성』에 미수록된 민요들도 여럿이었으며, 시집살이 등의 생활을 노래한 생활타령요, 과부나 첩 등의 신세를 서사적 맥락을 통해 엮어서 부르는 신세타령요, 인물이나 동물, 사물 등을 흥미롭게 풀어서 노래한 타령요 등이 많았다. 이들 중에서 특히 동물타령요에 속하는 <노루 노래>는 노래 사설에서 ‘동래 온정’의 장소 표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그런데 최상수가 기록한 민요 채록 정보는 기존 민요를 현장에서 확인 재조사한 경우, 해당 민요를 게재한 선행 문헌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선행 문헌에 대한 게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따르지 않았다면, 최상수의 채록 정보는 민요 조사의 선후 사정에 대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수가 조사한 부산지역 민요 자료가 특히 1930년대 초기 동래지역의 민요 전승 면모를 파악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지만,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 조사된 민요 자료인 만큼 부산지역 민요로서 갖는 한계도 분명히 드러난다. 부산이 바다를 낀 해양문화를 지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업노동요가 전혀 조사되지 못했으며, 금정산 등 산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음에도 별채노동요에 속하는 ‘어사용’류의 민요는 <나무꾼 아이 노래> 1편 외에는 조사되지 못했다. <상여소리> 등 장례의식요도 <죽은 사람 뒤에>에서 그 편린을 볼 수 있는 정도여서 아쉬운 점을 남기고 있다. 물론 한 개인이 의욕적으로 특정 지역의 민요를 전수 조사하지 않는 한 제한적인 조사의 성과를 보일 수밖에 없

다. 최상수 이후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진 민요 조사의 성과가 최상수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고 있는지를 앞으로 구명해야 하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김사엽·최상수·방종현 편,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문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엄필진, 『조선동요집』, 창문사, 1924.
영남민요연구회 편, 『이재욱전집1』, 국학자료원, 2013.
이재욱, 『영남전래민요집』(필사본), 1930.
임동권, 『한국민요집 I ~ VI』(전6권), 집문당, 1961, 1974, 1975, 1979, 1980, 1981.
임화 편, 『조선민요선』, 학예사, 1939.
조선총독부, 『민요조사(民謠調査)』, 1933.
조선총독부, 『향토무용·민요조사(郷土舞踊·民謠調査)』, 1935.
조선총독부,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郷土娛樂)』(일문), 조선총독부, 1941.
조운제, 『민요집』, 경성조선어문학회, 1935.
최상수 편, 『현대동요·민요선』, 대동인서관, 1944.
최상수, 『조선구비전설지』, 조선과학문화사, 1949.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2. 논저

- 강은혜, 「각설이타령」, 『한국민속문학사전 - 민요』, 국립민속박물관, 2013, 33쪽.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8.
구인모, 「김사엽(金思燁)의 민요 조사와 연구에 대하여」, 『동방학지』 제177집, 2016, 1~31쪽.

- 권오경, 『김사엽의 민요관과 민요 조사·연구의 특징』, 『한국민요학』 34, 2012.
- 김광식, 『최상수의 한국전설집 재검토』, 『열상고전연구』 64, 2018.
- 김광식·이복규, 『해방 전후 시기 최상수 편 조선전설집의 변용양상 고찰』, 『한국민속학』 56, 2012.
- 김사엽, 『귀향문예: 민요채집기 -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조선일보』, 1935. 8.
- 류덕제, 『엄필진의 『조선동요집』과 아동문학사적 의미』, 『어문학』 149, 2020.
- 박경수, 『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1998.
- _____, 『조선민요집성』,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민속문학사전 - 민요』, 국립민속박물관, 2013.
- _____, 『고정옥 민요 연구의 관점 변화와 인용 민요 자료의 성격』, 『한국민요학』 57, 2019.
- _____, 『일제강점기 손진태 채록 부산지역 민요의 성격과 의의』, 『항도부산』 39, 2020.
- 배경숙, 『이재옥과 『영남전래민요집』 연구』, 국학자료원, 2009.
- 송석하, 『남방이앙가』, 『학해』 1937년 12월호.
- 전경수, 『한국인유학 백년』, 일지사, 1999.
- 최광식, 『손진태의 생애와 학문활동』, 『역사민속학』 11, 2000.
- 편해문, 『옛아이들의 노래와 놀이 읽기』, 박이정, 2002.

3. 기타

- 『디지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2020. 9. 9 접속).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최상수&oldid=23389024>
(2020. 9. 9 접속).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grandculture.net>(2020. 9. 9 접속).

| Abstract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ollection Information of Folk Songs surveyed by Sangsu Choi in Busan

Park, Kyung-Su

Sangsu Choi recorded the collection information on about folk songs he collected in Busan and Gyeongnam area in *Gyeongsangnamdoji*(Bottom) (1963). However, many of these folk songs were included in *Chosun Folk Song Collection* (1948), co-compiled by Sayeop Kim, Sangsu Choi, and Jonghyun Bang. I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folk songs in the Busan area contained in the two documents, and analyzed whether the recording information for folk songs was reliable. While there was information on the records of folk songs Sangsu Choi heard from acquaintances in his childhood, retroactively to that time, I thought that his records were generally reliable. Among the folk songs in Busan that were included in both documents, five were already included in the existing folk songs. Sangsu Choi confirmed and re-recorded these folk songs through a field investigation. In the early days, Sangsu Choi researched folk songs through acquaintances in 'Gyo-dong, Dongnae-eup' (currently, Myeongryun-dong, Dongnae-gu) at the time, his hometown. Later, he expanded the folk song research area to surrounding villages.

The folk songs that Sangsu Choi surveyed in Busan showed three main characteristics. First, a number of agricultural labor songs were investigated, including <Song of Planting>, which was oral tradition in the Dongnae area. In particular, <Song of Planting>, which was investigated in his hometown, was compiled according to the order of planting and consisted of various

types of editorials. Second, there were children's oral songs that Sangsu Choi had remembered, as well as those who were acquainted with his hometown. Through these oral nursery rhymes, we can see various aspects of nursery rhymes that were oral in the Dongnae area at the time. Third, a number of 'taryeongyo', which are non-functional songs, were recorded. There is also a life-taryeongyo that sings about the life of the in-laws, and there is a situation-taryeongyo that combines the situation of a widow or concubine by the narrative context. There were also many interesting songs such as Taryeongyo, which sang interestingly about people, animals, and objects. In particular, <Song of the Deer> was noted as a song that made us recognize the place of "Dongnae Onsen" importantly.

Key Words : Sangsoo Choi, Jintae Shon, Folk Songs in Busan area, Oral nursery rhymes, Song of Planting, taryeongyo, the collection information, *Chosun Minyo-jipsung*(Chosun Folk Song Collection), *Gyeongsangnamdoji* (Bottom), *Chosun Dongyu-jip*(Chosun Oral Children's Rhymes Collection), *Unmun Chosun Gujunminyojip*(Chosun Folk Song Collection).

